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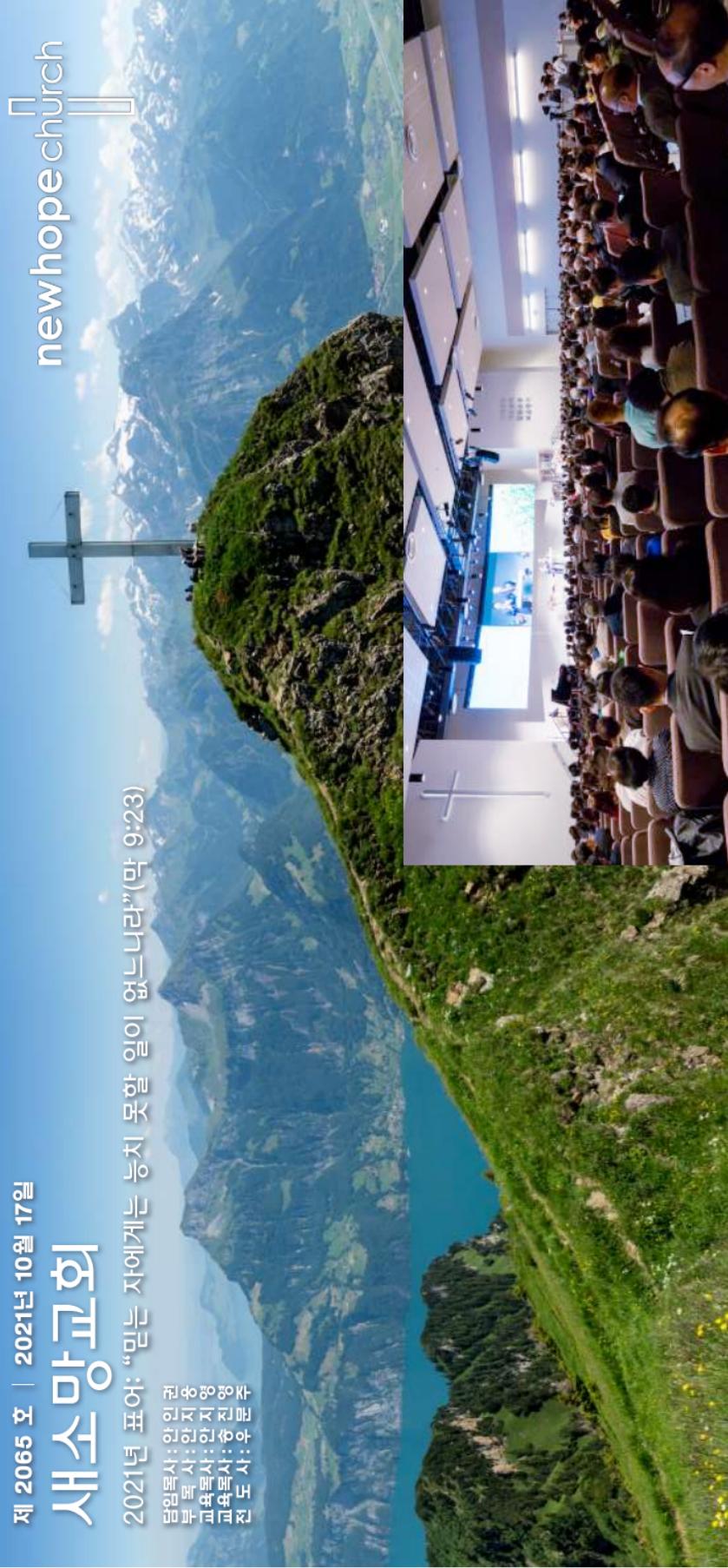
제 2065 호 | 2021년 10월 17일

# 새소망교회

2021년 표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담임목사: 안인호 목사  
부목사: 한지우 목사  
교육목사: 인지진 목사  
교육목사: 송우근 목사  
전도사: 전진우

newhope church



# 예배 순서

제 2065 호

10월 17일 2021년

집례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	고개들어	-----	다같이 Congregation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Congregation
기 도 -----	합심기도	-----	다같이 Congregation
* 봉 헌 -----		-----	다같이 Congregation
봉 헌기도 -----		-----	집례자 Presider
성 경 -----	1부: 요 15:4-8 2부: 수 1:1-2 3부: 1 Thessalonians 3:6-13	-----	집례자 Presider
설 교 -----	1부: 하나님의 뜻④ 2부: 왜, 여호수아인가? 3부: The Real Good News	-----	안지웅 목사 (1부) 이수희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광 고 -----		-----	집례자 Presider
* 찬 송 -----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	다같이 Congregation
* 축 도 -----		-----	안지웅 목사 (1부) 안인권 목사 (2부) Rev. Joe Ahn (3부)

\*현금순서는 개별적으로 좌석 통로 입구의 현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종 · 복음증거

-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종,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종

### 실천사항 :

- ◎ 매일증거
- ◎ 매일기도
- ◎ 매일순종
- ① 응답(기도)의 통로
- ② 기쁨(성령)의 통로
- ③ 영광(감사)의 통로
- ④ 축복(순종)의 통로
- ⑤ 생명(희생)의 통로

-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 지난주 설교 요약

## 있는 것과 없는 것 (막6:35-40)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저물어가니(인생의 한계) – 장소와 시간이라는 환경은 인간의 한계를 증명한다.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같은 환경이 실패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환경은 바꿀 수 없으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자세 결정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결국 빈들과 저무는 때에서 대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환경의 변경) – 환경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조건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판단에 따라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유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 질망적인 환경 희망적 환경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공이 결정된 환경, 실패가 결정된 환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이다. 환경 극복 여부에 승부가 결정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환경의 변경) – 환경 변경을 반복하게 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성공이 완벽하게 보장된 환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의로 환경을 바꾸는 삶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환경을 바꾸는 삶이 있다. 아브라함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뻗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옮겼다. 결과는 실패였다. 그 풍성한 소돔으로 갔으나 빈 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환경의 극복, 환경에 굽복) – 환경의 극복 여부가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이해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계산 실력을 기준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기 계산 기준으로 이백데나리온의 떡의 필요를 말하는 결론은 불가능이었다. 인간의 계산 실력이 문제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해결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환경의 극복, 환경에 굽복) –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지식에 머물면 예수와 나의 환경과는 관계가 없으나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환경은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환경이 된다. 환경을 극복 못할 이유가 없다. 환경에 굽복하는 인생과 환경이 굽복하는 인생이 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하나님이 주신 것) – 제자들이 이 곳은 빈들이며 때는 저물어 간다고 했다. 아무 것도 없다는 제작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이 반문과 지시를 하신다. 과연 아무 것도 없는가? 웃이 없는가? 웃보다 중요한 몸이 있고 신발이 없는가 신발보다 중요한 발과 다리가 있다. 정말 아무 것도 없는가 모든 것 보다 중요한 생명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마14:18) – 목숨처럼 생각하는 물질(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사용의 문제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누가 사용하는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용하면 한 사람의 양식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사용하면 오천 명의 양식이 된다. 문제는 소유에 있지 않다. 사용에 있다. 내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사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 된다.

제자에게 명하신 무리를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순종하는 장소) –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떼를 지어 앉은 자리가 푸른 잔디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 된 인생은 푸른 초장에 있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를 따르면 그 곳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제자의 순종이 무리의 순종으로 연결, 확장될 때 언제나 푸른 초장에 있게 된다.

부족 여부는 초장 여부가 아니라 순종 여부다 – 부족함의 여부는 목자의 존재 여부에 있고 목자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다. 부족함은 순종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의 소유자라 해도 순종이 없으면 부족함이 해결되지 아니하며 아무리 실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순종과 부족 여부는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 푸른 초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자가 있는 곳이다.

소유와 사용 – 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존재 밖에 있는 것과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있다. 결정적인 것은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있는 것이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안에 예수가 계시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한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이다. 내가 사용하면 내 능력 수준의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 능력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

# 교회 소식

- ◎ 부흥성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수고하신 강사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가을부흥성회(10월 14일-10월 17일) 마지막 집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결단과 대전환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강사: 이수희목사 (순복음 번영로교회) / 새벽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주일 오후 4시)
- ◎ 새벽예배 중보기도 팀:  
(월)남여선교회 (화)예배팀과 찬양대 (수)금요찬양팀, 영어권찬양팀, 학생부찬양팀  
(목)교육부서 (금)청년부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신속한 백신 공급과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배당 입장, 퇴장 순서: 입장때는 앞줄 좌석부터, 가운데 좌석부터 좌석해 주시고, 예배후에는 뒷줄부터 간격을 유지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 위한 주의사항: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자 제외), 손씻기, 간격유지

1. 10월 청소: 은혜구역, 화평구역

2. 토요(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감사①구역

## <10월 및 11월 행사>

1. 가을부흥성회: 10월 14일(목)-10월 17일(주일) (강사: 이수희목사 (순복음 번영로교회))  
(새벽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주일 오후 4시)
2. 로드맵 컨퍼런스 예배인도(안지영목사): 10월 18일(월) 와싱톤중앙장로교회
3. 에콰도르 교회개척 선교 바자회: 11월 13일(토)

##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http://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노방전도 일정표

□ 엘리콧시티 롯데	□ 엘리콧시티 한아름	□ 엘리콧시티 뚜레쥬르	□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①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①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②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②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①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①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②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②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①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①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②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② 구역 :	*가정예배		

# 예배와 모임 시간

## □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30(영어)

□ 새벽예배: 오전 5:30

□ 금요찬양: 오후 8:00

□ 구역예배: 오후 7:30

□ 청년부 제자훈련: 오후 4:00 (토)

□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 주일 학교: 오전 10:30 (주일)

# 복회칼럼

##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류(Upstream)로 가라

적당히 수습하는 삶에 만족하는 무력한 인생을 거부하고 확실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문제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항상 문제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상식이다.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뚫는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업스트림(Upstream)’의 저자 댄 히스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은 상류에 있다는 것이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하류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하류가 아니라 상류에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하류에서 허우적댄다. 원인은 상류에 있는데, 하류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해결하려고 아우성을 친다. 결혼 생활의 불행을 막으려면 애초에 약속을 지키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집수리에 진을 빼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서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 하류가 아니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중간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가야 한다.

앞이 안보이면 앞에 사람을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사람이 내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사람의 뒤에 앉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남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켜 앉으면 되는 것이다. 어디가 상류이고 어디가 하류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Upstream과 Downstream이라는 지정학은 확실히 우리의 시야를 바꾼다. 우리가 대체 어디서 해매고 있는가를 각성 시키는 정확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수습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수습과 해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급한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응급 처치를 치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다. 근본적인 해결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응급 처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해결이 아닌 수습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예를 들어 태평양에 한반도의 15배 크기의 약 160만 평방Km의 쓰레기 섬이 있다. 전 세계에서 흘러나온 쓰레기가 모여 형성된 섬이다. 현재의 크기도 크기지만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심각성이 있다.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해양 오염의 문제이다.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약일지 모르지만 역사 종말까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세계 각국의 정책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지만 개개인의 자세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인간의 환골탈태의 변화는 인간적 노력으로 불완전하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 존재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의 장소로 올라가야 한다. 에덴이다. 그 에덴이 오늘 날은 이 땅에 존재한 하늘 나라의 현주소가 교회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류이다. 최초로 만나는 근원지요 발원지가 교회이다.

상류에서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적 상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필수적 과정이다. 중생이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신생인 것이다. 존재의 상류에서 다시 새롭게 존재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인류 문제의 발원지는 에덴이다. 인류 전체가 각자 발원지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거기서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한 시작이 아닌 마귀로부터 시작을 선택한 결과가 인류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적에 대하여 즉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수정된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무책임하게 만드는 타성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다. 잠재된 타성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으로 반응한다. 수습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삼는 임시방편적 자세가 고착된 삶을 살게 된다. 타성을 깨는 것이 문제의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다. 잘못된 타성에서 계속 잘못된 원인이 흘러 나오는 것을 방치 내지 방관하는 동안 내 인생의 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커져가는 것이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터널링(Tunneling)의 문제가 있다. 터널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심각하게 보이고 그 문제만을 향해 반응하는 현상으로써 우선순위 변경을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의 터널에 갇힌 상태가 문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문제의 상류가 존재의 상류이고 변화의 상류이다. 생명의 상류 축복의 상류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모든 것은 상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